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62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69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음력 9월 29일 kwangju.co.kr

위드 코로나 전환 … 물가 먼저 뛰었다

10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3.5% 상승 9년 9개월 만에 최고
공공 물가 전남 7.2%·광주 6.8%↑… 유류세 20% 인하 기대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가 무려 3.5% 오르며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생필품 물가에 대출금리 인상도 심상치 않아 지역민 살림살이에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2년 1월(광주 3.3%·전남 3.4%)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201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5%대로 치솟았다. 광주 5.3%, 전남 5.2% 상승했는데 이는 10년 2개월 만의 최고다.

광주·전남에서는 공공서비스 물가가 충북(7.3%)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는 전남 7.2%, 광주 6.8% 상승했다.

휴대전화료(25.5%)와 우편료(10.3%), 국제항공료(8.4%), 사립대학교납입금(6.8%), 하수도료(광주 8.8%·전남 1.6%) 등이 크게 올랐다.

통계청은 휴대전화 요금 상승에 대해 지난해 10월 적용된 통신비 지원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을 진행한 대학교가 올해 정상 수업을 하면서 인하했던 등록금을 다시 올리기도 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영향으로 전기료는 각각 2.0% 올랐다. 휘발유 등 공업제품 가격도 전남 4.8%, 광주 4.4% 오르며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난달 지역 휘발유 가격은 광주 27.9%·전남 25.0% 올랐다. 이날 현재 광주·전남 보통 휘발유 주유소 평균 가격은 5주 연속 고공행진하며 ℓ당 18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광주 26.6%·전남 25.9%) 이후 1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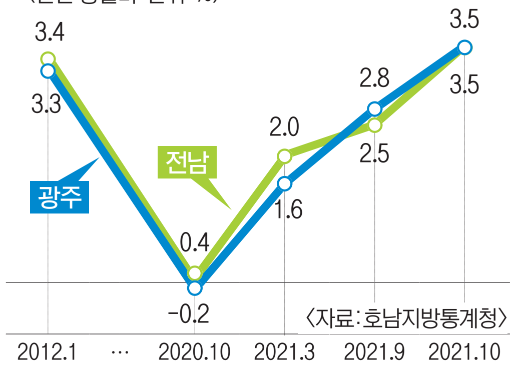
대파·달걀 수급난을 겪으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농축수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찾아 지난달 광주는 0.6% 올랐고, 전남은 0.6% 내렸다.

임상문 호남통계청 경제조사과 팀장은 "11월부터는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각종 가격 안정 조치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상 여건이 차츰 나아지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는 크게 둔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가격에 반영한다. 유류세 인하 폭을 소비자 가격에 최대 반영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또 외식·숙박 등 9개 산업 부문에 대한 2282억원 상당 소비쿠폰을 뿌려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비·단위:%〉



〈자료:호남지방통계청〉

이재명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부동산 대개혁"

민주당, 매머드급 선대위 출범
정권재창출 위한 대장정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OP돔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이재명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면서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면서 "공직 개혁 부진으로 정책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 개혁부터 하겠다"며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정치혐오 위기를 실용 정치의 기회로 삼겠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겠다"면서 코로나 손실보상 확대 방침을 재강조했다. 또 "저희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면서 "그동안 민주 정부와 민주당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라면서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박용진·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 함께 했다. 이는 경선 과정의 갈등을 선대위 출범식을 계기로 불식시키며 용광로 원팀의 모습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가 2일 서울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경선을 함께했던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풍절정

무등산·내장산 등 울긋불긋

무등산과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 명산에 모두 단풍이 들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무등산과 조계산, 가지산에 단풍이 지기 시작하면서 기상청이 날씨누리를 통해 단풍정보를 제공하는 유명산 21곳 모두에 단풍이 물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정상부터 헤아려 산 20%에 단풍이 들면 단풍이 시작됐다고 본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주왕산, 가야산 등은 이미 단풍이 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과 덕유산, 지리산은 전날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다.

산의 80%에 단풍이 들면 절정으로 판단된다. 단풍은 보통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들기 시작한다. 기온이 낮은 북쪽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내려온다.

올해 단풍은 평년보다 매우 늦었다. 지리산과 내장산은 각각 10월 26일과 10월 29일로 평년(지리산 10월 11일·내장산 10월 20일)과 비교해 보름과 아흐레 늦었다. 앞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올해 전국 평균 단풍절정일이 10월 26일로 작년보다 사흘 늦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장 관측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우리나라 단풍절정이 연평균 0.4일씩 늦어져 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